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21호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개최 안내

일시 : 6월 25일(금) 오후 4시 ~ 5시 30분

“스포츠클럽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스포츠인권연구소

故 **최숙현 1주기 스포츠인권포럼 개최**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故 **최숙현 1주기, 대한체육회장은 연임에 성공하고...**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한국철인3종협회

철인3종 정상화 눈앞...신신제약 이병기 사장 협회장 당선

김경무 스포츠서울 전문기자

도쿄올림픽

불안한 지구촌 스포츠 축제, 한달 앞으로

최원영 스포츠월드 기자

『**스포츠인권**』

“중학교 태권도부때 저지른 학폭...법은 6년 지나도 응징했다”

“경남 실업팀 선수 대부분 합숙 생활”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스포츠는
인권이다

체육시민연대 CNet 포럼

주제

스포츠클럽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 일시 : 6/25(금), 오후 4시 ~ 5시 30분

Zoom 링크

<https://cau.zoom.us/j/82277332191>

○ 방식 : 실시간 온라인(ZOOM, YouTube)

YouTube 링크

https://youtu.be/rAz9ut0_rUM

◇ 사회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발제

조영웅 | 변호사

◇ 토론

주성택 |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주재헌 | ESPOUSE EARTH 대표(변호사)

허현미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스포츠인권연구소, 故 최숙현 1주기 스포츠인권포럼 개최

스포츠인권연구소(대표 문경란)는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의 1주기를 맞아 19일 제2회 스포츠인권포럼을 개최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그 후 일 년'이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공간새길에서 열린 이날 스포츠인권포럼은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대외협력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법무법인 서상 김종우 변호사, 젊은빙상인연대 여준형 대표, 대전시청 철인 3종 정지은 선수, 전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이은경 선수, 한겨레신문 이준희 기자가 토론자로 나왔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는 팀 내 지도자와 선배 선수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발제를 맡은 함은주 박사는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도 폭력 등 스포츠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스포츠 문화와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이런 구조를 작동시키는 행위자로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 회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등을 요구했으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의를 신청하며 반발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개편에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며 스포츠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 박사는 "그들의 죄를 밝히는 것만으로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범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스포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포츠인권포럼은 선수 및 지도자, 체육 교사, 스포츠 단체 및 정책 관계자, 연구자, 여성·시민·인권 운동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5월에는 '왜 지금 스포츠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스포츠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최속현 선수 1주기, 대한체육회장은 연임에 성공하고...

최속현 선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준 노력과 변화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오히려 연임에 성공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최속현 선수의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던 그는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기관에 애끓는 호소를 했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최 선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

애도는 함께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 그 비극적 사건의 본질을 사회적 가슴에 새기는 일이다. 고 최 선수 사건 이후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또한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과 스포츠기본법 발의 등 스포츠 정책 틀의 대전환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는 최 선수 사건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그의 죽음을 업무재해로 인정했다. 체육계의 가혹행위가 산재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목숨을 던져 올린 사회적 경종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흔들어 깨운 것이다.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무엇을 했을까? 문체부가 만병통치약인 양 내세웠던 스포츠윤리센터는 개관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등 조직 구성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데다 발족 이후 내용을 겪으면서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

당시 문체부는 성적 지상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주말 대회로의 전환,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개편,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선수등록제도 개선,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등 10대 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 외에 아무것도 없다. 또한 문체부는 최 선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꺾등으로 듣고 버티고 있다.

최 선수 사건이 터진 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대책 같지 않은 대책을 발표했던 대한체육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준 노력과 변화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접촉해본 일부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은 “달라진 건 없다. 체육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과 패배감만 더 깊어졌다”라고 말했다.

최 선수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던 대한체육회장은 오히려 연임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더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조직 내에 스포츠인권실을 설치했지만 이를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지의 발로로 이해하는 체육인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인권이란 말을 차용할 뿐 진정성을 토대로 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스포츠 현장에서 제2, 제3의 최속현 선수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탁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코치에게 호소했으나 보호는커녕 “네 탓”이라며 질책을 당하고 퇴출 압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장 계속

세상은 변하는데 구태를 반복하는 체육계

청주공고 핸드볼부 폭력사건에서 가해자는 버젓이 명문대학으로 진학한 반면 피해자는 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 선수가 당했던 폭력을 증언한 동료 선수들은 이후 자신들을 받아주는 팀이 없어 방황하고 좌절해야만 했다.

최근 나이키코리아가 시작한 '플레이 뉴(Play New)'라는 캠페인 영상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을 즐거움으로 제시한 영상 메시지에 폭풍 공감하는 댓글이 1000개가량이나 달렸다. 스포츠 바깥의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는데 오로지 체육계와 관련 당국의 인식과 태도만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스포츠 정책의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 최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진행하는 일련의 정책은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상처에 봉대만 덧대는 식의 면피성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으면 이를 뒷받침했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또한 개편돼야 한다. 1년 전 문체부가 공언했던 10대 과제의 이행과 이를 통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이 공존하는 체계로의 전환만이 한국 스포츠가 나아갈 길이다.

철인3종 정상화 눈앞... 신신제약 이병기 사장 협회장 당선

‘최속현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표류중이던 한국철인3종협회가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신신제약(주) 대표이사가 새 회장에 당선돼 앞으로 4년간 이끌게 된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철인3종협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내 한국체육산업개발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철) 회의에서, 회장에 단독출마한 이병기(64) 신신제약 대표이사 사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터진 최속현 사건 파문으로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정상화 과정을 밟아왔다.

신 대표이사는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진행된 ‘회장 후보등록’ 결과 홀로 지원서를 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는 이날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대표이사의 적격여부를 심사했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협회는 소정 절차를 거쳐 조만간 새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후 회장 당선인의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 효력은 상실된다.

신 대표이사는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학사, 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 공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그는 이후 명지대에서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신신제약 창업주인 이영수 회장의 아들이다.

신 대표이사는 협회에 낸 ‘회장 출마 공약 서문’을 통해 “오랫 동안 철인3종을 지켜봐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제약사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변화가 대한민국의 강인한 정신과 체력의 밑거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신신제약 수장으로서 가슴에 새긴 기업정신과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철인3종 종목의 안정화와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잡힌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철인3종 종목이 일어서기 위해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지만 숨죽인 자숙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철인3종 종목의 새로운 변화는 대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대표이사는 구체적 공약으로 △전용훈련장 건립 △동호인 50만명으로의 저변확대 △2026 아시안게임, 2032 올림픽 메달권 진입 등을 내세웠다.

[올림픽 D-30] 불안한 지구촌 스포츠 축제, 한달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미뤄진 2020 도쿄하계올림픽의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32번째 하계올림픽에는 최초로 '홀수해에 열리는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896년 근대 올림픽 태동 이래 124년 만에 질병으로 연기된 최초의 대회라 올림픽 시계마저 바뀌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나라별로 크게 다른 백신 보급·접종률 탓에 인류의 이동은 2년째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 국민과 기업마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퇴로 없는 올림픽 강행'을 사실상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목표 달성 목전에 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영국에서 끝난 G7(주요 7개국) 정상 회의에서 각 나라 정상들의 올림픽 개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17일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던 긴급 사태도 해제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달 초 집행위원회 직후 "모든 면에서 도쿄올림픽은 준비를 가장 잘한 대회"라며 "완전한 개최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했다. 7월 23일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선수·지도자를 최악에는 국외로 추방하겠다고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긴급 사태 해제로 '감염 폭발'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다.

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선수촌과 경기장이라는 '버블'에 수용해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겠다는 도쿄조직위의 구상과 방역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다.

도쿄올림픽에선 33개 정식 종목, 339개 세부 경기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한다. 18일까지 25개 종목, 92개 세부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 196명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세계 예선은 6월 29일 끝나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선수 최종 엔트리 마감은 7월 5일이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이상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한다. 대회 초반에 몰린 '효자 종목' 양궁과 태권도가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주도한다. 양궁은 7월 23~31일, 태권도는 7월 24~27일 열린다.

미국 스포츠데이터 회사인 그레이스 노트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도쿄올림픽 순위 예상을 보면,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를 따내 종합 순위 10위에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금메달 43개 등 114개의 메달을 획득해 1위를, 중국이 금메달 38개로 2위를 달릴 것으로 그레이스노트는 예측했다. 개최국 일본은 목표인 30개를 뛰어넘어 금메달 34개를 수집할 것으로 관측됐다.

도핑 샘플을 조작하고 결과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도핑 스캔들을 주도한 러시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도쿄올림픽에서도 자국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2020년 최종 판결에 따른 것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딴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ussian Olympic Committee)의 약어인 'ROC' 소속으로 올림픽 무대에 선다.

IOC의 지속적인 남녀 성비 균형 정책에 따라 도쿄올림픽에서 여성 선수의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녀 혼성 경기의 수는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보다 9개 증가한 18개다.

중학교 태권도부때 저지른 학폭... 법은 6년 지나도 응징했다

중학교 때 저지른 폭행·폭언으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성인이 됐지만, 학창시절 '한때의 폭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경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였다. 태권도를 하던 그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후배들에게 훈련 태도 등을 지적하며 폭언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걸레 자루 등 둔기로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년이 지난 폭행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판결문에 상세히 적었다.

재판부는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폭행 당시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갖 지났고 범행 당시에는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다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학생 신분이었던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스포츠계 학폭'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아예 별도의 근절 방안까지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학폭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가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로 스포츠 구단과 국가대표·대학은 선수를 선발할 때 학폭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폭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대구=김윤호·김정석 기자
youknow@joongang.co.kr

경남 실업팀 선수 대부분 합숙 생활

도·시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현황

(2021. 6. 8. 기준 / 단위: 명)

시군	팀명 또는 종목	합숙소 운영		전체 선수인원	출퇴근 선수 현황 (지도자 제외)
		운영여부	입퇴소 의무화 여부		
계	29개팀 22종목			274	32 (합숙소 운영팀 중 14명)
경남	역도	운영	이용자 선택	11	0
도청	유도	운영	이용자 선택	12	0
	롤러	운영	이용자 선택	12	0
창원시	검도	운영	이용자 선택	7	2
	레슬링男	운영	이용자 선택	6	1
	레슬링女	운영	이용자 선택	5	0
	볼링	운영	이용자 선택	6	0
	사격	운영	이용자 선택	17	2
	씨름	운영	이용자 선택	9	1
	양궁	운영	이용자 선택	6	0
	육상	운영	이용자 선택	7	1
	축구	운영	이용자 선택	30	0
	테니스	운영	이용자 선택	6	0
	휠체어컬링	미운영	-	5	5
진주시	조정부	운영	이용자 선택	7	0
	육상부	운영	이용자 선택	6	0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운영	이용자 선택	7	0
사천시	여자농구	운영	이용자 선택	9	0
김해시	하키	운영	이용자 선택	21	4
	축구	운영	이용자 선택	28	0
	역도	운영	이용자 선택	4	0
밀양시	배드민턴	운영	이용자 선택	10	1
거제시	씨름	운영	이용자 선택	5	0
양산시	여자배구단	운영	이용자 선택	9	0
	여자탁구단	운영	이용자 선택	5	0
의령군	궁도	미운영	-	7	7
함안군	육상	운영	이용자 선택	7	2
남해군	복싱	운영	이용자 선택	4	0
합천군	육상	미운영	-	6	6

경남도와 12개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에서 합숙소 입퇴소 여부를 선수가 선택하도록 한 가운데 대부분 합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준 경남도와 12개 시군은 22개 종목에서 29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휠체어컬링(창원시), 궁도(의령군), 육상(합천군)을 제외한 26개 팀 선수들이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경남도와 12개 시군은 합숙소 입퇴소와 관련해 선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합숙훈련 참가와 관련해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것인데, 실업팀 26곳 중 출퇴근하는 선수가 있는 팀은 8곳이었다. 출퇴근하는 선수는 20대 3명, 30대 11명으로 모두 결혼한 선수들이었다. 합숙훈련 참가와 관련해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떨어져나와 생활하는 선수는 없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도자·동료 등을 대상으로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표면적으로 선택권을 주더라도 선수들이 출퇴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둘째, 구단이 나서서 합숙훈련을 폐지한 여자 핸드볼팀 경남개발공사 사례에서 보듯 '위로부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빙상 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3차례 이뤄지면서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실업팀 운영규정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합숙훈련 참가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등 공염불에 가까운 규정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어떤 실효적인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하나 고민했을 때 정확히 나오는 게 딱히 없었다. 서면으로라도 제출받는다 고 해놓고 세부적인 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이나 합숙소 관리지침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바뀌어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며 "전체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봐주면 될 것 같다. 강압적인 문화를 개선해나가고자 시스템을 계속해서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 스포츠 소식

[단독] “우리 숙현이 이름이 아픔 대신 희망으로 남기를”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1/06/18/3ARBI3VOBVGAZOQ5YP46BWLOE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가대표 좀 안 되면 어때? 테니스만 계속 할 수 있으면 되지!”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089>

다음 달부터 해외 접종자도 격리 면제...스포츠 경기장·공연장 거리두기 완화

<https://www.mbn.co.kr/news/society/4526105>

돈 내야 본다, 스포츠 중계권 양극화

<https://news.joins.com/article/24085254>

대구 수성구 소재 스포츠센터 등 13명 코로나19 신규발생

<http://tk.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19/2021061900005.html>

경기도, 27일까지 e스포츠 산업 인재 육성 교육생 모집

<https://www.news1.kr/articles/?4344683>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수배자...부산서 교통경찰에 붙잡혀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59400051?input=1195m>

2021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개최

<http://mksports.co.kr/view/2021/588135/>

[김세훈의 스포츠IN] 인조잔디, 단순 교체만 능사?...정기적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6191611003&sec_id=520101&pt=nv

‘역대 최고 시청률’ 프로배구, 프로스포츠 사상 최장 방송권 계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0972&ref=A>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